

1. so ~ that 구문

- 1) 「so + 형용사/부사 + that ...」로 구성되어 '너무 ~해서 ...하다'라고 해석한다.
- 2) that(접속사) 이후에는 완전한 주어 + 동사의 문장 위치한다.
- 3) 「so that 주어 + 동사」 (~가 ...할 수 있도록) 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.

[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]

One of them painted grapes that looked **so** real **that** birds tried to eat them.

✓ so + 형용사(real) + that +주어(birds) + 동사(tried to) 구문으로 '너무 진짜처럼 보여서 새들이 시도했다'라고 해석한다. 감각동사 look(보이다)가 사용되었으므로 부사가 아닌 형용사(real)가 왔다.

<해석> 그들 중 하나가 포도를 그렸는데 너무 진짜 같아서 새들이 실제로 먹으려고 했다.

Between them are many ordinary objects that look **so** real **that** even the smallest detail can be detected.

✓ so + 형용사(real) + that +주어(even the smallest detail) + can 동사원형 으로 '너무 진짜처럼 보여서 심지어 작은 디테일이 ~할 수 있었다'의 의미를 갖는다.

<해석> 그들 사이에는 너무 진짜처럼 보여서 심지어는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많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있다.

2. must have p.p

- 1) must(~함에 틀림없다) + 현재완료 구문으로,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(~했음에 틀림없다)을 나타낸다.
- 2) 조동사 + have + p.p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, 후회 등을 나타낸다.
 - must have p.p (~했음에 틀림없다)
 - may[might] have p.p (~했을지도 모른다)
 - should have p.p (~했어야 했다)
 - can't[couldn't] have p.p (~했을 리가 없다).
- 3) 조동사(must)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위치하므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에도 have를 사용한다.

[교과서 예문으로 확인하기]

The artist **must have painted** the skull to remind us that we will, one day, die.

✓ 화가가 그림을 그린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므로 must의 과거형인 must have painted(paint의 과거분사)가 사용되었다. 주어가 3인칭 단수임에도 조동사 must 다음에 원형인 have가 나왔다.

<해석> 화가는 분명 우리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것을 그렸을 것이다.

미리보는 빈출문장

✧ At other times, artists turn ordinary images into 1)something strange and 2)make us wonder about them.

1) -thing 형용사

형용사가 -thing으로 끝나는 명사(something, nothing, anything, everything)를 수식할 경우 앞이 아닌 뒤에서 수식한다.

** -body와 -one으로 끝나는 명사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

2) 사역동사

5형식 문장 「주어 + 동사 + 목적어 + 목적보어」에서 동사로서 사역동사(make, have, let)가 올 경우,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이 온다.

** get : 목적보어로 to 부정사

help : 목적보어로 to 부정사 / 동사 원형

〈해석〉 다른 때는, 화가들은 평범한 이미지들을 낯선 것으로 바꾸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궁금해 하게한다.

✧ To these artists, 1)what mattered 2)most was the vividness of the moment.

1) 관계대명사 what

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, '~하는 것'이라고 해석한다.

w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, 목적어, 보어 역할을 하며 예문에서는 주어로 사용되었다.

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(s) which로 바꾸어 쓸 수 있다.

→ what mattered = the thing which mattered

2) well의 최상급 most

동사 matter를 수식하는 부사 much(많이)의 최상급인 most(가장 많이)가 왔다.

* 형용사/부사의 비교급, 최상급(불규칙)

- good/well(좋은/잘) - better - best • bad/ill(나쁜/나쁘게) - worse - worst
- many/much(많은) - more - most • little(적은) - less - least

〈해석〉 이러한 화가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순간의 생생함이었다.

✧ 1)Between them are many ordinary objects 2)that look 3)so real that even the smallest detail can be detected.

1) 부사구로 인한 주어 동사 도치

장소의 부사구 Between them 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면서 주어(many ordinary objects~)와 동사(are)가 도치되었다.

2) 주격 관계대명사 that

선행사 many ordinary objects가 관계사 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다.

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불가능하다.

3) so ~ that ...

「so + 형용사/부사 + that ...」로 구성되며 '너무 ~해서 ...하다'라고 해석한다.

문장의 주어로 감각동사 look이 사용되었으므로 보어로 형용사인 real이 왔다. (감각동사 + 형용사)

** so that S + V = ~가 ...할 수 있도록

〈해석〉 그들 사이에는 너무 진짜처럼 보여서 심지어는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많은 일상적인 물건들이 있다.

미리보는 빈출문장

★ He distorted the shape of a common object to 1)make 2)it harder to recognize.

1) 5형식 문장

「주어 + 동사 + 목적어 + 목적보어」로 목적보어로는 명사, 형용사, 동사가 올 수 있다.

본문에서는 목적보어로 형용사(hard)의 비교급(harder)이 쓰였다.

make it harder to recognize

V O OC

2) 가목적어

to 부정사절/that절이 문장의 목적어로 올 경우 이를 가목적어 it으로 묶고, 진목적어를 뒤로 보낸다.

본문의 원래 형태 make to recognize harder에서 목적어인 to recognize를 가목적어 it으로 묶고, 진목적어를 뒤로 보낸 형태이다.

make to recognize harder → make it harder to recognize

목적어

가목적어

진목적어

〈해석〉 그는 평범한 사물의 형태를 왜곡해 그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.

★ The painting probably hung on a wall right beside the stairs, 1)so that the viewers, 2)while coming down, could see the skull in its original shape.

1) so that S can/could V

「so that + 주어 + can/could + 동사원형」은 ‘~가 ...할 수 있도록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.

** so + 형용사/부사 + that ... : 너무 ~해서 ...하다

2) 분사구문

「접속사 + 주어 + 동사」의 부사절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분사(ing)로 표현

(접속사는 생략 가능하나, 본문에서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생략하지 않았다.)

while they(the viewers) came ~ = (while) coming ~

〈해석〉 아마도 그 그림은 계단 바로 옆의 벽에 걸려, 보는 사람이 내려오는 동안 해골의 원래 형태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었을 것이다.

★ The image feels 1)real, but we cannot explain exactly 2)what we see, just 3)as if it were a dream.

1) 감각동사 + 형용사

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보어로서 위치한다. (해석은 부사와 같으나, 부사가 아님을 주의)

** 감각동사: look(~하게 보인다), smell(~한 냄새가 나다), sound(~하게 들리다), taste(~한 맛이 나다), feel(~하게 느껴지다).

2) 관계대명사 what

관계대명사절이 동사 explain의 목적어로 쓰였다. 관계대명사 what은 ‘~하는 것’으로 해석된다.

**what = the thing(s) which

3) 가정법 as if

「as if 주어 + 동사의 과거형」은 ‘마치 ~인 것처럼’이라고 해석하며,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.

be동사의 경우 주어와 상관없이 ‘were’를 쓴다.

〈해석〉 이미지는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이 꿈인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.



◇「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」제33조에 의한 표시

1) 제작연월일 : 2018년 04월 11일

2) 제작자 : 교육지대(주)

3) 이 콘텐츠는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.

◇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외에도「저작권법」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,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